목판화에 담은 자연과 생명

홍선웅 '판각기행' 28~12월 11일 인사아트센터

암벽이나 고인돌에 새겨진 암각화와 빗살무늬 토기, 와당이나 석탑, 건축물에 새겨진 문양 속에서 우리는 판화의 연원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불교가 우리 문화의 큰 중심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불교 판화는 우리 전통 판화의 뿌리가 되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판화는 1007년(고려 목종 10)에 종지사의 홍철대사가 간행한 보협인다라니경(寶陜印陀羅尼經) 변상판화이다. 책머리에 부처님이 공양을 받기 위해 인도되는 장면이 판화로 새겨져 있는데, 이후 고려 시대에는 불경 제작시 변상판화들도 함께 제작되었다.

우리 판화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고 있는 판화가 홍선웅씨가 28일~12월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첫 개인전 '홍선웅의 판각기행'을 연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민족미술협의회에서 당시의 비민주적인 사회상을 표현하며 민중 판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홍씨가,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규장각 그리고 여러 서원에서 접한 경판과 목판본 문집을 통해 우리나라 목판화의 장점을 발견하고 전통

"현대 판화 비해
거칠고 투박하지만
고졸한 멋 가득"

목판화에 담긴 자연과 생명을 찾아 나선지 7년여 만에 여는 것이다.

홍씨는 "고려와 조선시대 목판의 투박하고 힘찬 각선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무언의 질서를 보았으며, 거친 듯 하지만 마구리까지 하며 정성들여 다듬어 놓은 목판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대지의 커다란 품과 본(本)이 느껴졌다"면서 "찍어낸 판화만이 아니라 판(板)과 각(刻)과 형(形) 모두를 중요시하며 발전시켜온 우리 선대 각수들의 폭넓은 판각문화 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프레스기로 인쇄한 듯 세밀하게 20~30도씩 찍어내는 현대 판화보다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고졸한 멋을 풍기는 고(古) 판화나 먹 판화에 더 애착을 느낀 황씨가 본격적으로 전통 먹 판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 경기도 강화 보구곶리에 터를 잡고, 칼 쓰는 법을 다시 배우고, 먹 판화 작업에 매진했다. 홍씨는 망치로 조각칼을 두드리며 깊고 얕게 파나가는 투각법(打刻法)과 칼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인각(引刻)의 판각기법을 연마하며, 힘차고 옹골찬 각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 먹 선묘의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 조선 닥종이나 천연염색을 한 무명천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먹을 갈 때 한약재인 천궁 달인 물을 사용해 번지거나 먹의 농담이 고르게 찍히지 않는 약점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개발 보완했다.



◇진경산수 화법을 도입한 다색판화 '하동 쌍계사'.

이번 전시에는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법을 구하는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형상화한 연작 '선재동자 구도기'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 화법을 판화로 끌어온 '하동 쌍계사', '해남 미황사', '해인사 백련암' 등 진경판화 등 40여점이 선보인다.

홍씨는 이번 전시와 더불어 판화를 감상하며 우리 판각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홍선웅의 판각기행>(미술문화)을 펴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전남 화순 운주사를 방문한 프랑스 작가 클레지오(사진 중앙일보 제공).

佛 세계적 작가 르 클레지오 운주사에서 캐낸 詩心

20년 동안 소설만을 써 왔던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 씨가 '운주사, 가을비'라는 시를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으로 보내왔다. 클레지오 씨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대산문화재단의 초청을 받았고, 그때 운주사를 들렀다. 보내온 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흩날리는 부드러운 가을 비 속에
꿈꾸는 눈 하늘을 관조하는
와불
구전에 따르면, 애초에 세분이었으나 한분 시위불이
홀연 절벽쪽으로 일어나 가셨다
아직도 등을 땅에 대고 누운 두분 부처는
일어날 날을 기다리신다
그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란다.'

'티베트 염불음악' CD 나왔다

'옴 · 마니 · 반메 · 훔'은 내 마음속에 깃든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키우고 꽃피워서 괴로움과 서러움이 많은 중생들을 돕고자 다짐하는 대승불교의 깨달음과 실천행을 함축해서 표현한 진언이다.

'옴 · 마니 · 반메 · 훔'을 티베트의 음악과 티베트인의 목소리로 담은 명상음반 '마음을 열어주는 티베트 염불음악1 · 2' CD가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에서 나왔다.

편안하면서도 친근한 곡들로 구성된 이 음반의 첫 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자비로워지기를 바라는 경쾌한 리듬의 '옴 · 마니 · 반메 · 훔'과 우리나라 천수경 독송과 전혀 느낌이 다른 음악곡 '천수다라니'가, 두 번째 장에는 명상곡 '옴 · 마니 · 반메 · 훔'과 '삼귀의'가 수록돼 있다. (061)852-3038



◇사진은 염불 수행중인 티베트 스님들.

재일동포 기증유물 화려한 집들이

진주박물관 '두암관' 개관

재일교포 두암 김용두(79 · 덴리개발 회장) 옹의 기증유물을 모은 국립진주박물관 '두암관'이 19일 문을 열었다. 박물관 서쪽에 세워진 두암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과 사회교육실, 지하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두암관에는 김씨가 기증한 179점의 유물 가운데 중국 동정호 남쪽 소강과 상강이 합류하는 곳의 빼어난 여덟 풍경을 그린 '소상팔경도'와 석가모니의 좌우에 문수 · 보현보살을 배치한 '석가여래삼존도'를 비롯해 '나한도', '묘법화엄경변상도', '목조불단장엄화' 등 8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소상팔경도 中 산사의 저녁 풍경을 그린 연사모종(煙寺暮鐘).

김씨는 국외문화재 반환의 공을 인정받아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19일에는 진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055)742-5952 여수령 기자

우리 맛의 역사 알기

민속박물관 '옛 음식책이 있는 풍경전'

궁중음식연구원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21일~2002년 1월 7일까지 음식 관련 문헌을 통해 우리 전통음식문화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옛 음식책이 있는 풍경' 특별전을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특별전은 1400년대부터 1800년대 까지의 옛음식책과 1900년대의 근 · 현대음식책을 연대별, 주제별로 분류 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음식책의 역사와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궁중음식연구원에서 발굴한 <산가요록> <침주법> <가기한중일월> 등 옛 음식책 4권이 국내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 <산가요록>은 술 · 장 · 죽 · 밥 · 떡 · 만두 · 수제비 등 229가지의 다양한 조리법을 담은 것으로 조선시대 초기인 1400년대의 식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1600년대 말에 한글로 작성된 <침주법>에는 약 50여 종류의 술 담그는 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으며, <가기한중일월> 역시 한글로 쓰여진 책으로 조선후기의 궁중음식 조리법을 알 수 있다. (02)720-3138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보르헤스의 문학세계 (5)

21세기 시대정신 담을 코드는 '화엄'으로 집약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성격을 나타내는 시대정신이란 게 있다면, 과연 21세기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많은 미래학자들이 진단하는 21세기의 특징은 문명간의, 학문간의, 종교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교류와 대화가 활발해지리라는 것이다. 과학, 철학, 종교 등의 최신 흐름을 종합해볼 때,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을 코드는 '화엄'이란 한 마디로 집약되는 것 같다. 특히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물리학과 과학철학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화엄은 불타가 깨달음을 통해 본 우주의 심오한 구성방식을 상징하는 말로서, 현상세계는 상호 무한한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을 나타낸다. 이를 가장 쉽게 표현한 말로는, 의상대사의 <법성게>에 나오는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포함되어 있다(一微塵中含十方)'는 구절을 들 수 있다. 또한 그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로는 '인드라(제석천)의 그물'이 있는데, 제석천의 세계는 그물망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그 그물코 하나 하나는 진주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진주 속에는 전체 진주가 다 투영된다고 한다. 따라서 진주 하나만 들여다봐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보르헤스는 이런 화엄사상에 착안하여 단편소설을 한 편 발표했는데, 바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알레프>이다.

보르헤스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1인칭소설에서, 그는 어느 집의 깜깜한 지하실에서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발광체를 발견한다. "그때 나는 알레프를 보았다. 알레프의 직경은 2~3 센티미터밖에 안 되지만, 우주 전 공간이 축소되지 않고 거기 있었다. (…) 나는 모든 각도에서 알레프를 보았고, 알레프에서 지구를 보았으며, 지구에서 다시 알레프를 보았다. 나는 현기증이 나서 울고 말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 이름을 남용하지만 결코 본 일이 없는 비밀스런 가상의 대상, 즉 불가해한 우주를 내 두 눈이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각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그런 장엄한 세계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담은 보르헤스의 소설은 보리수 아래서의 불타의 정각(正覺) 장면을 연상시킨다. 보르헤스는 자신이 직접 쓴 <불교강의>에서 이 대목을 인상 깊게 다루었다. 한 인간이 자신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시공간의 제약을 뚫고 피안으로 비상하여 우주의 비밀을 엿보는 감동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보르헤스는 책을 많이 읽은 영향과 또 유전병으로 만년에 눈이 멀고 만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지하실을 이 소설의 무대로 삼은 것은 자신의 불행한 실명을 빗댄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암흑 속에 찬란한 우주경(宇宙鏡)인 알레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은 육안을 넘어서는 심안(心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주를 머금은 작은 거울'은 어디 먼 데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야말로 우주의 끝까지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아닐까? 우주를 속속들이 비추는 알레프가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은 생각해볼수록 신비로운 일이다.

■문학평론가